

# LG생활건강, 화장품사업이 최고

우리투자증권, 매출신장률 가장 높아 ... 2012년 매출 4조원 육박

LG생활건강의 화장품사업부가 3개 사업부 중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이 3월16일 주장했다.

우리투자증권의 윤희진 연구원은 “화장품사업부 매출 신장률이 3월부터 현재까지 17%에 달하며 다른 사업부와 비교할 때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”며 “해외사업부 성장률이 40% 이상이고 백화점 성장률도 20% 이상으로 추정된다”고 밝혔다.

또 “2012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3조8542억원, 영업이익 4605억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”면서 “1/4분기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면 2012년 전체 영업실적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아울러 “최근 삼다수 유통권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입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”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16>